

## 수 박

진 초록, 고운 피부에 구불거리는 세로줄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여름 들뜬에서 피약별에 누워있는 수박, 누군가에 의해 가슴을 열면 정열을 쏟아 내는 그는, 더위의 열을 식혀주는 '여름 과일의 왕자'이다.

누구나 한 입 베어 물면 붉은 수액에 감동과 찬사가 넘치는데 나는 그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홉 살의 슬픈 기억 때문이다.

대 종갓집인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도청 소재지에 이사하여 살게 되었다. 집은 행랑채에 사는 '길호'아범이 관리하고, 제사 때나 명절에 내려가곤 하였다. 그때는 음력 칠월,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이틀 전에 고향에 내려갔다. '길호'아범이 제물을 사오고, 산등성이 밭에 심어놓은 수박을 따러 올라갔다. 올라 간 지 한 나절이나 되었을까, '길호'아범이 온몸에 수박물이 들어 축 늘어진 채 머슴의 등에 업혀 왔다. 잘 익은 수박을 바지계에 가득 담아 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다. '길호'어머님의 눈은 모든 슬픔을 안은 듯 했고, 울음을 토하며 수박을 원망하는 녀두리에 신세타령까지 해댔다. 어린 마음에 나도 놀라 울면서 '길호'어머님의 슬픔에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수박을 제사상에 올리지 말자고 할머니께 말했다. 그러나 '길호'어머님이 한 덩어리 수박만은 멀쩡했다며 찢어 왔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난감해 하면서도 수박을 받았다.

제사상에 올려진 수박 한 덩이, 사방으로 쏟아져 튀굴어 깨어지고 으깨졌어도 한 덩이 수박만은 혼자 튀굴어 제사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음복을 위해 썰어 놓은 잘 익은 수박을 어린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수박이 범벅이 '길호'아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일년여 '길호'아범은 일을 하는 등 마는 등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향 집에 갈 적마다 '길호'어머님의 울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수박농사는 짓지 않았다. 육십 여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기억이 생생하여 지금도 수박을 즐겨 먹지 않는다.

“주님, 수박은 수박인데 슬픈 기억이 덧입혀져 수박 맛이 제 맛이 아닙니다. 지난 일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게 기억에서 놓여나도록 저를 도우소서. 저 세상으로 간 길호 아범도 영혼이 정확되어 남편 잃은 길호어머님이 산 세월이 치유되도록 돕게 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기도 안에서 위로받게 도우소서.”

<청담수필반 12구역 최옥연 제노베파>

### ♣ 후원단체 계좌안내

성소후원회	국민	809101-04-16623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군중후원회	우리	1005-002-45937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관내지원)	국민	809101-04-16402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바보회(대외지원)	하나	843-910006-1540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장학회	하나	843-910006-6440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성음악(콘서트)후원	하나	843-910002-97705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건축기금(시설보수)	우리	1005-102-08791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 사 헌 금 (9월 1일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33,990,000	김 레 문 도	100,000	박 헬레나	1,000,000	총 세대수	3,681
		한 로사	100,000	김 바울	1,000,000	총 납부세대	1,223
주일봉헌금	14,130,560	윤 마리아	50,000			지난주 납부세대	11
		합 계		2,250,000원		지난주 납부율(%)	33.2
성소후원금 (6건)	124,000						